

## 치아 고통의 종교적 표현\*

- 성 아폴로니아 숭배를 중심으로 -

방 원 일\*\*

- I. 머리말
- II. 성 아폴로니아에 관한 공식적 문헌
- III. 치통 환자의 수호성인
- IV. 성인 숭배의 치의학적 맥락과 치과의사의 수호성인
- V. 맺음말

### I. 머리말

인간은 질병으로 겪는 고통으로 인해 종종 존재의 집인 언어가 무너져내린 상태에 처한다. 고통은 기본적으로 언어에 저항함으로써 경험의 공유를 불가능하게 하기 때문에,<sup>1)</sup> 고통받는 이는 혼돈에 빠져 자신의 이야기를 구성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다.<sup>2)</sup> 치아의 고통 역시 형언하기 쉽지 않은 고통 중 하나로 존재해왔다.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5B5A07063448)

\*\*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문화연구원 HK연구교수

1) 일레인 스캐리, 『고통받는 몸: 세계를 창조하기와 파괴하기』, 메이 옮김 (과주: 오월의봄, 2018), 8.

2) 아서 프랭크, 『몸의 증언: 상처 입은 스토리텔러를 통해 생각하는 질병의 윤리학』, 최은경 옮김 (서울: 갈무리, 2013), 196-204.

인류는 근대 치의학이 성립되기 이전에는 치아 질환에 뾰족한 치료 방법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치아와 관련된 다양한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했다. 기원전 10세기 경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바빌로니아 토판문서에 치통의 기원 신화가 등장한 것을 비롯해서,<sup>3)</sup> 인류 종교사 곳곳에서 치아의 고통이 종교적 표현에 आरो새겨진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 글은 치아에 관련된 종교현상 중 비교적 장기간 유지된 신앙체계인 성 아폴로니아(St. Apollonia) 숭배를 통해서 종교사에서 고통 경험이 표현의 영역을 구축하는 과정에 관한 탐구이다. 아폴로니아는 3세기 알렉산드리아에서 활동한 여성 기독교인으로, 로마 데키우스 황제 치하의 기독교 박해로 인해 249년에 동정녀로서 순교하였다고 전해진다. 그는 초기부터 순교자 성인으로서 시성(諡聖)되었고, 중세 말기에 치통 환자를 위한 성인으로서 두드러져 유골 숭배와 도상 제작이 활발해졌으며, 현재까지도 다양한 형태의 상징을 통해 신앙 받고 있다.

종교 연구에서 성 아폴로니아가 연구의 대상이 되거나 언급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치의학계에는 다수의 선행 연구가 있다. 치의학 역사에서 성 아폴로니아는 서양 중세의 치의학에 필수적으로 등장한다. 1557년 마르티네즈(Francisco Martinez)가 저술한 최초의 치의학 저서에서 언급된 것을 시작으로, 대부분의 역사서에서 성 아폴로니아는 치과 의사의 수호성인으로 소개되었다. 최근의 역사 서술에서는 과학이 아니라 믿음에 의존한 전근대 치의학의 상황을 보여주기 위해서 소개되기도 한다.<sup>4)</sup> 성 아폴로니아의 기본 정보를 요약적으로 소개하는 다수의 논문이 있고,<sup>5)</sup> 지역의 구체적 사례를 연구한 논문들이 있으며,<sup>6)</sup> 치과 관련 전승 모음

3) 제임스 B. 프리처드 엮음, 『고대 근동 문학 선집』, 김구원 외 옮김 (서울: CLC, 2016), 160-162.

4) 제임스 윈브랜트, 『치의학의 이 저런 역사』, 김준혁 옮김 (서울: 지식을만드는지식), 78-83.

5) Ryan Donnelly, "St. Apollonia: The Patron Saint of Dentistry," *Journal of History of Dentistry* 53(3), 2005, 97-100; Gheorghe Gh Balan, et. al., "Saint Apollonia: Between Paganism and Christianity in Medicine," *International Journal of Medical Dentistry* 5(1), 2015, 7; Henry A. Kelley, "Saint Apollonia: The Patron Saint of Dentistry," *The Journal of the National Dental Association* 6(5), 1919, 400-12.

6) A. Skrobonja, et. al., "St Apollonia's Tooth: A Relic in the Cathedral Treasury in

집에 다양한 자료가 수록되어 있다.<sup>7)</sup> 그러나 치의학의 선행 연구들은 자료 수집과 요약에 주력하지만, 그 학제적 성격상 이러한 자료가 신자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를 해석하려는 노력을 시도하지는 않았다. 또 자료들이 수집되었을 뿐 그 맥락과 상호관계가 엄밀히 분석되지 않아 정확한 해석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본 논문은 성 아폴로니아 관련 텍스트와 도상 자료 등을 해당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당대의 종교적 맥락에서 갖는 의미를 파악하는 작업에서 출발한다. 이를 바탕으로 종교학의 자리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던지려 한다. 왜 순교성인인 아폴로니아가 치통 환자를 위한 성인이 되었을까? 그가 겪은 고통은 그가 신성화되는 데 어떤 역할을 하였는가? 그가 치통의 성인으로 떠오른 중세 유럽의 종교적 맥락은 어떠했는가? 그는 어떻게 치통 환자와 치과의사 둘 다의 성인이 될 수 있었는가?

성 아폴로니아 숭배는 얼핏 보기보다 광범위한 종교현상이다. 기원후 300년 이후 현재에 이르는 긴 역사를 가지며, 유럽 각지에서 전개되면서 다양한 양상의 숭배로 발전하였다. 그래서 한 논문에서 정확하게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이 현상을 한 단위의 연구 대상으로 설정한 것은 치아의 고통에 대한 종교적 반응이라는 공통된 경험적 기반을 근거로 전체를 묶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이다. 이 논문에서는 종교학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은 한 사례를 통해 인간 육체의 고통과 종교현상의 관계를 논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고통의 경험이 어떻게 공유될 수 있는가를 탐구하는 의료인문학적 논의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하에서는 성 아폴로니아에 관한 초기 문헌 자료를 비교 분석

---

Rab (Croatia),” *British Dental Journal* 207(10), 2009, 499-502; Leslie Abend Callahan, “The Torture of Saint Apollonia: Deconstructing Fouquet’s Martyrdom Stage,” *Studies in Iconography* 16, 1994, 119-38; Stefano Eramo, et. al., “A “Sacra Rappresentazione” of Saint Apollonia’s Martyrdom,” *Journal of the History of Dentistry* 65(2), 2017, 63; J. Beal, “Representations of St Apollonia in British Churches,” *Dental Historian: Lindsay Club Newsletter* 30, 1996, 3.

7) A.B. Smithers, *From Empirics to a Science: A Compendium of Dental Folklore and Early Dental History* (Brighton: Pen Press Publishers, 2011); G.P.H. Foley, *Foley’s Footnotes: A Treasury of Dentistry* (Wallingford, PA: Washington Square East, 1972).

하고, 중세 유럽의 도상 자료를 통해 그가 치통 환자의 수호성인으로 인식된 내적 논리를 유추하고, 그 이후 그가 치과의사의 수호성인이 되어 현재까지 유지된 양상을 고찰할 것이다.

## II. 성 아폴로니아에 관한 공식적 문헌

일반적으로 성 아폴로니아 연구는 그에 관한 공식적인 문헌에서 출발한다. 문헌 내용을 옮겨놓는 것으로 대부분의 설명이 채워진다.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 문헌을 취급할 때 간과된 사실들이 있다. 첫째, 성 아폴로니아 전승에는 다양한 판본(version)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아래에서 살펴보겠지만 전승이 고대, 중세, 근대의 어느 시점에 누구에 의해 기록되었느냐에 따라 문헌의 주안점과 세부 내용은 달라진다. 따라서 관련 내용이 어떤 맥락에서 생산된 어떤 판본인지를 전제하지 않은 분석은 의미가 있기 힘들다. 둘째, 성 아폴로니아 전승은 종교 문헌으로서 사실의 기록이기보다는 믿음의 기록이다. 어떤 연구는 문헌 내용의 사실성을 기준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엉뚱한 결론에 이르기도 한다. 또 어떤 연구는 문헌 내용의 불일치나 부정합성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성 아폴로니아 문헌은 장르상 성인전(聖人傳, hagiography)에 속한다. 역사학자 패트릭 기어리(Patrick J. Geary)가 지적했듯이 이 장르의 집필 목적은 성인 개인의 특징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인에 공통되는 성스러움의 보편적인 특질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사적 진실에 근접하는 경우가 드물다.<sup>8)</sup> 그러므로 우리는 문헌 내용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상투적 표현으로 구성된 전승의 이면에 놓인 강조점의 변화를 해석하는 일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셋째, 문헌 내용이 왜 성 아폴로니아가 치통의 수호성인이 되었는지를 제대로 설명해주지 못한다는 역설이 존재한다. 아래에서 분명해지겠지만 초기 전승은 치통 문제를 거의 언급하지 않고

8) 패트릭 J. 기어리, 『거룩한 도둑질: 중세 성유골 도둑 이야기』, 유희수 옮김 (길, 2010), 33.

단지 그렇게 발전될 수 있는 맹아(萌芽)를 간직하고 있을 뿐이다. 그가 치통의 수호성인이 된 것은 후대의 대중 전통에서 발전된 결과이다. 후대의 발전에 대해서는 3장에서 다루기로 하고, 우선은 대표적인 문헌 자료들을 하나하나 검토하도록 하겠다.

### 1. 에우세비우스 교회사에 서술된 아폴로니아

아폴로니아에 관한 1800년이 넘는 다양한 전승들의 출발점은 저명한 교회사가 에우세비우스(Eusebius of Caesarea)가 3-4세기 경에 저술한 『교회사』(The Ecclesiastical History)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성인 전승은 순전한 사실의 기록으로 보기보다는 신학적 의도를 염두에 두고 해석해야 하는데, 이는 순교자 전승에서 핵심적인 자리를 차지하는 『교회사』에도 해당한다. 순교자 기록을 연구한 캔디다 모스(Candida Moss)는, 다수의 순교 이야기의 모태가 된 에우세비우스 『교회사』는 사실의 기록보다는 기독교 문학의 클리셰로 구성되어 있고, 책에서 편집된 자료를 통해 전달되는 것은 죽음에 관한 정확한 정보라기보다는 순교자에 대한 저자 에우세비우스의 생각이라고 주장한다.<sup>9)</sup>

사실 여부를 떠나 우리에게 이 기록이 중요한 것은 후세 전승의 기본 뼈대가 제공되기 때문이다. 『교회사』 제6권에는 알렉산드리아의 성 디오니소스가 안티오크 주교 파비우스에게 보낸 편지가 수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알렉산드리아에서 진행된 반기독교 폭동과 이에 희생당한 이들에 관한 이야기이다. 희생자로 노인 메트라, 여성 키타에 이어 아폴로니아가 언급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다음에 폭도들은 경이로운 나이 든 처녀 아폴로니아를 잡아 와서, 그녀 턱을 쳐서 이빨이 모두 부러져 나오게 했다. 그리고 도시 앞에 장작더미를 세워 그녀가 그들을 따라 신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거부한다면 산채로 불태우겠다고 위협하였다. 그러나 그녀는 잠깐 여유를 달라고 부탁하여 풀려난 후, 주저함 없이 불 속으로 뛰어들

9) Candida Moss, *The Myth of Persecution: How Early Christians Invented a Story of Martyrdom* (New York: Harperone, 2013), 85-124.

어 사라졌다.<sup>10)</sup>

짧은 내용이지만 주요 구성요소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폭도가 나이 든 동정녀 아폴로니아를 잡아 옴 ②테러오는 과정에서 턱을 쳐서 이빨이 모두 부러져 튀어나옴 ③신을 모독하는 말을 강요하면서 산채로 불태우겠다고 위협 ④거부하고 장작더미 속으로 뛰어듦. 우리는 앞으로 여기서 제시된 세부 요소들이 이후의 전승에서 어떻게 변형되는지 살펴보게 될 것이다.

위의 내용은 충돌 과정에서 “이빨이 모두 부러졌다”는 한 장면을 제외한다면, 일반적인 순교와 크게 다르지 않다. 강제 연행과 위협, 신성모독의 강요와 거부, 신앙을 보여주는 결단 등은 순교자 이야기의 전형적인 내용이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핵심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불 속에 뛰어든 장면으로 집약된다.

당대 독자들이 주목한 것도 자발적으로 보이는 죽음이었다. 426년에 출간된 아우구스티누스(Augustine of Hippo)의 『신국론』(De Civitate Dei)에는 이 죽음과 관련된 논증이 등장한다.<sup>11)</sup> 이 책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기독교인에게 자살은 합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아폴로니아를 직접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박해 시대 여인들의 죽음’이 이에 대한 예외에 해당한다. 당시 사람들은 박해 시대에 목숨을 바친 여인들의 기념 경당을 다니며 공경하였는데, 이는 아우구스티누스도 무시할 수 없는 현상이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예외적 죽음을 옹호한 논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죄악이 아니라는 것이다. 아폴로니아와 같은 희생자들은 자결하라는 계시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 것이며, 이는 일반적인 의미의 자살이 아니라는 것이다.<sup>12)</sup>

10) Eusebius, *The Ecclesiastical History*, Kirsopp Lo, tr.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64), book VI. XLI. 7.

11) Alban Butler, *Lives of the Saints* (New York: Kenedy, 1956), 286.

12) 아우구스티누스, 『신국론(제1-10권)』, 성염 역주 (왜관: 분도출판사, 2004), I: 26, 179-191.

## 2. 황금 전설에 서술된 아폴로니아

중세 성인전을 대표하는 저작은 『황금 전설』(Legenda Aurea)이다. 도미니크회 수도사 야코부스(Jacobus de Voragine)가 1260년경에 저술한 이 책은 출간 이후 현재까지 전해오는 라틴어 필사본만 해도 1천 종에 이르고, 번역은 수를 헤아리기도 힘들 정도이다. 인쇄술 발명 이후에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인쇄될 정도로 유럽에 널리 보급된 신앙 서적이었다.<sup>13)</sup> 이 책에 실린 아폴로니아 이야기는 『교회사』 판본에 비해 분량이 몇 배 이상 늘어났다. 저자가 아폴로니아의 행위가 갖는 교리적, 도덕적, 신비적 의미를 밝히는 상당한 길이의 부연을 추가하였기 때문이다. 다소 길지만 해당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데키우스 황제 재위 기간 알렉산드리아에서 하느님의 종에 대한 야만적인 탄압이 벌어졌다. 그러나 비참한 악마의 사람인 디비누스(Divinus)라는 남자가 통치자의 포고령을 예측하고서 그리스도의 종에 대한 미신적인 무리를 선동하였고, 들불처럼 일어난 폭도들은 신실한 이들의 피만을 갈구하였다. 그들에게 처음으로 잡힌 이들은 신실한 신자 남녀들이었다. 그들 일부는 폭도들에게 팔다리가 찢기고 조각조각 잘려 나갔다. 어떤 이는 폭도들에게 얼굴을 훼손당하고 날카로운 막대기에 눈이 찢려서 도시 밖에 버려졌다. 다른 사람들은 폭도들에게 우상 앞으로 끌려가 우상숭배를 종용당하고, 숭배를 거부하고 우상을 저주할 때엔 발이 함께 묶인 채 거리를 끌려가 잔인하고 끔찍하게 고문당한 끝에 목이 찢어지고 흩어졌다.

이 시기 알렉산드리아에 아폴로니아라는 나이가 꽤 많은 존경스러운 처녀가 살고 있었다. 그녀는 정숙, 냉정, 순결의 꽃에 둘러싸여 있었고, 성령의 힘을 받아 단단한 기둥처럼 서 있었다. 그녀 신앙의 가치와 미덕이 주님에게 인정받아 천사들의 존경을 받았고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었다. 광분한 폭도가 하느님 종의 집을 둘러싸고 적대적인 잔인함으로 모든 것을 때려 부수고 있을 때, 복된 아폴로니아가 불경한 자들의 범정에 끌려 나왔다. 순박함에 있어 결백하고, 미덕에 있어 거리낌이 없었고, 용감한

13) 김준한·김지은, 「『황금전설』 프랑스어 번역사 연구 시론」, 『통번역학연구』 19 (2015), 181.

정신의 일관성과 주저함 없는 양심의 순수함에 있어 더할 나위 없는 모습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신실한 영혼을 하느님께 바치고 가장 순결한 육체를 박해자들에게 넘겨 고통을 받았다. 고문관들은 잔인하게 자기의 분노를 그녀에 가하여 먼저 그녀 치아를 모두 쳐서 밖으로 나오게 하였다. 그다음에 나무를 썬아 큰 장작더미를 만들고, 그녀에게 그들의 불경한 행위에 동참하지 않으면 산채로 불사르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녀는 장작이 이미 불타고 있음을 보고 잠시 목상을 한 후, 갑자기 악인들의 손을 뿌리치고 자신의 의지로 그녀를 위협하던 불 속으로 뛰어들었다. 무자비하게 그녀를 고문했던 이들은 자신이 가하려던 것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죽음을 감행한 여성을 보고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다. 이미 많은 종류의 고통에 시험받았던 이 두려움 없는 순교자는 그녀가 겪은 고통에도 불의 뜨거움에도 굴복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녀의 정신이 훨씬 빛나는 진리의 빛에 불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간의 손으로 붙인 물질적인 불은 불굴의 가슴 속의 하느님에 의해 불어 넣어진 열을 이겨낼 수 없는 것이다.

오, 이 처녀의 위대하고 기적적인 투쟁을 보라. 그녀는 자비로운 하느님의 은총에 의해 불에 들어갔지만 불타지 않았고 타면서도 재가 되지 않았으니, 마치 불이나 고통이 그녀에 닿지 않는 것 같았다! 자유 속에는 평안이 있지만, 싸움을 피하는 이들에게는 영광은 없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순교자인 충직한 처녀 아폴로니아는, 세상의 즐거움을 경멸하고, 자신에 찬 판단으로 세속의 번영을 짓밟고, 오직 그녀의 배우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기를 갈망하였다. 처녀로 남는다는 굳은 결심을 기쁘게 지킴으로써, 그녀는 치가 떨리는 고문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은 채 있었다. 이 처녀의 덕목은 너무 영광스럽고 복되게 승리한 것이어서 순교자 가운데서 우월하고 빛난다. 정말로 이 여성의 굳센 정신은 투쟁의 큰 무게 아래 꺾이지 않았다. 하늘나라에 대한 사랑으로 그녀는 모든 지상의 두려움을 쳐내고 그리스도 십자가의 영광을 움켜잡았다. 육체적 유희과 모든 고통에 대해 칼이 아니라 신앙으로 무장한 그녀는 싸워 승리하였다.<sup>14)</sup>

야코부스의 서술은 『교회사』 판본의 기본 내용을 유지하면서도 세부적으로 저자의 설명을 삽입하였다. 그는 구체적으로, 폭동의 양상, 아폴로니아의 성품, 체포당했을 때의 당당한 태도, 불 속에 뛰어드는 과정, 죽음에 대한 적대자의 반응,

14) Jacobus de Voragine, *The Golden Legend: Readings on the Saints*, William Granger Ryan (tr.)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3), 1: 268-69.



뛰어난 이후 불 속에서 일어난 기적, 죽음의 의미 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였다. 그 내용은 별도의 정보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야코부스의 신학적 속고와 성인전 클리세에 의해 확대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의 서술은 두려움 없는 순교라는 주제를 한층 강화하여 아폴로니아의 복된 승리를 순교자 가운데서도 우월한 것으로 칭송하는데 이른다.

치아의 고통과 관련한 세부사항에는 작지만 유의미한 변화가 있다. 이전 전승에서는 폭도에게 끌려오는 혼란의 와중에 이빨이 부러진 것처럼 다소 불분명하게 묘사되었다. 그러나 『황금 전설』에서는 고문관이라는 명확한 주체가 지목되어 그들의 “분노를 그녀에 가하여 먼저 그녀 치아를 모두 쳐서 튀어나오게 하였다.” 고문이라는 요소가 결부되어 치아 고통의 가해자와 방식이 더 명확해진 것이다.

### 3. 버틀러 성인전에 서술된 아폴로니아

근대의 대표적인 성인 자료집은 『버틀러 성인전』(Lives of Saints)이다. 영국의 성인전 저술가 앨번 버틀러(Alban Butler)가 30년의 연구 끝에 1757~1759년에 출판한 저서로, 많은 개정과 번역을 통해 보급되었으며, 성인전 분야의 영어 고전으로 인정받고 있다.<sup>15)</sup> 이 책에 실린 아폴로니아 서술은 간결하게 위의 두 기본자료의 기초를 유지한다. 순교 과정에 관한 서술은 다음과 같다.

나이 든 여성 집사(deaconess) 아폴로니아가 잡혔다. 사람들이 얼굴을 때려 그녀 이빨이 부딪혀 모두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그들은 도시 바깥에 큰불을 지피고 불경한 말을 내뱉지 않으면 그녀를 불에 집어넣겠다고 위협하였다. 그녀는 마치 요청에 대해 고려하는 듯하면서 잠시 멈춰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리고 박해자들에게 자신의 희생이 완전히 자발적인 것임을 확실히 하기 위해, 그녀는 풀러나자마자 스스로 화염 속으로 뛰어들었다.<sup>16)</sup>

15) “Butler, Alban,” *Encyclopædia Britannica*, 11th ed. Hugh Chisholm (e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11), 4: 881.

16) Butler, *Lives of the Saints*, 286.

버틀러는 주로 에우세비우스의 서술을 따랐고, 마지막 문장에서 그녀가 자발적인 죽음을 택하였다고 강조하였다.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그는 아폴로니아 숭배에 관한 주요 정보를 제공한다. 그녀는 주로 서방 교회에서 치아 질환과 관련되어 숭배되고, 예술작품에서 치아를 잡고 있는 집게나 목걸이에 매달린 금이빨로 표현된다고 소개된다.

우리는 고대, 중세, 근대를 대표하는 성인 기록물에서 아폴로니아 전승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를 검토하였다. 그녀에 관한 공식적인 문헌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자료들이 아폴로니아 숭배를 연구하는 출발점이 된다. 그러나 이 자료의 검토에서 우리는 뜻밖의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그것은 공식적 문헌에서 아폴로니아가 왜 치통 환자와 치과의사의 수호성인이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공식적 문헌의 주제는 아폴로니아의 자발적 죽음이다. 치아의 손상은 전체 줄거리에서 작은 부분으로, 어느 전승에서는 폭도에 끌려오는 와중에, 다른 전승에서는 고문관에 의해 수행된 것으로 달리 기록된다. 이 세부사항은 치통 환자의 성인을 암시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된 이유를 설명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는 공식적 문헌으로 치통 환자의 성인 아폴로니아를 해명하려는 기존 연구의 한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치통 환자의 수호성인의 성립을 공식적 전통(official tradition)에 의해 제공된 것이 아니라 중세 이후 대중적 전통(popular tradition)의 성인 숭배 맥락에서 볼 필요가 있다.<sup>17)</sup>

17) 서양 중세의 대중적 전통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고할 것. W. Th. M. Frijhoff, "Official and Popular Religion in Christianity: The Late Middle-Ages and Early Modern Times(13th - 18th Centuries)," Pieter Hendrik Vrijhof and Jacques Waardenburg, eds. *Official and Popular Religion: Analysis of a Theme for Religious Studies* (The Hague: Mouton Publishers, 1979), 88-91.

### III. 치통 환자의 수호성인

공식 문헌에서 치통의 성인으로서의 아폴로니아의 면모는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다. 그가 치통 환자의 수호성인으로 등장한 것은, 14세기 이후 서유럽에서 그에 대한 대중적 신앙이 유행할 때였다. 그와 관련된 성화, 성상, 유골이 다수 제작되거나 등장하였고, 치통 완화를 위한 기도문이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대중은 어떠한 이유에서 아폴로니아를 호출하였을까? 이 지점에서 우리는 공식 문헌에서 눈을 돌려 당시 숭배의 중심이 된 물질적 대상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중세의 신앙 대상들은 단순히 공식 문헌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었다. 대중적 전통은 자기 경험의 맥락에서 문헌을 재해석하고 전유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새로운 해석을 담은 물질적 대상을 낳았다. 우리는 대중, 구체적으로는 치아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이 성 아폴로니아를 통해 추구하였던 것이 무엇인지를 중세 신앙의 자료를 통해 찾고자 한다. 대중적 전통은 신앙의 내적 논리를 체계화하여 문헌으로 남기지 않는다. 우리가 접하는 자료는 신앙의 물질적 결과이기 때문에, 논리적 증명보다는 해석과 추론을 통한 접근이 가능할 뿐이다. 아래에서 해석의 바탕이 되는 자료들을 검토하도록 하겠다.

#### 1. 성 아폴로니아 기도서

왜 아폴로니아는 치통의 수호성인이 되었을까? 공식 문헌에는 아폴로니아가 순교 과정에서 이빨이 부러지거나 뽑히는 아픔을 겪었음이 기록되어 있다. 이는 순교 이야기의 세부 내용이고 전체 주제에서는 중요한 내용이 아니었지만, 비슷한 유형의 순교 이야기 중에서 아폴로니아를 인지할 수 있게 해주는 변별 지점이 되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치통에 고생하던 대중의 이목을 끌었다. 그녀가 고통을 겪은 당사자이기에 치통의 아픔을 가장 잘 이해하고 아픔을 호소하는 기도를 하느님에게 전달해줄 책임자일 것이라는 대중적 인식이 작동했기 때문이다. 다른 질병 수호성인의 사례에서 많이 나타나는 것처럼, 그녀가 겪은 구체적 고통의 내용, 그

리고 그 고통에 공감하는 능력이 그녀의 특정 종류의 신성함의 근원이 되었다.

이러한 생각은 중세 프랑스에서 전승되었다고 전해지는 라틴어 기도문에 반영되어 있다. 기도문은 예수와 아폴로니아 간의 대화 형식으로 되어있다.

예수: “아폴로니아야,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아폴로니아: “주님, 저는 피와 치통 때문에 여기 있습니다.”

예수: “아폴로니아야 돌아가거라. 피가 나면 멧을 것이고, 벌레가 있다면 죽을 것이다.”<sup>18)</sup>

성인이 예수와의 소통으로 그의 권능을 발휘하게 한다는, 중재자로서의 위치가 이 대화의 기본적인 구도를 형성한다. 아폴로니아가 대화의 맥락에 등장한 것은 아픈 이들에 대한 연민 때문이었다. 그녀는 예수에게 필요한 대답을 얻은 후에 돌아갈 수 있었다. 이 간단한 문답에 당시의 치의학적 상식이 결부되어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여기서 고통의 증상은 ‘피와 치통’이고 치료는 피의 멈춤과 벌레 제거이다. 현대 의학에서 치아우식증이라고 불리는 충치(蟲齒)는 인류사의 오랜 기간 잇속 벌레에 의한 것이라고 이해되었다. 잇속 벌레는 미생물 개념이 없는 시대의 사람들이 치통의 알 수 없는 외부적 원인을 표현하는 은유였다. 현대적 치과 시술이 부재한 중세에 가능한 치료는 청결한 상태에서 안정을 취하고 약재를 잇몸에 올려놓거나 피를 빼면서 고통이 완화되기를 기다리는 것이었다. 그 과정에서 이러한 기도문이 암송되었는데, 이 맥락에서 이 기도문은 주문(呪文)이기도 했다. 성 아폴로니아의 치통 기도는 주문으로 이해되고 하나의 치료법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중세 말 문헌에 진정제로 쓰인 약초 목록과 함께 수록되었다.<sup>19)</sup> 성 아폴로니아 기도는 현재도 이어지는 종교적 실천이다. 종교 시장에서는 카드 형태의 기도문(prayer card)이 판매되고 있다. 서양에서는 치과에서 환자가 성 아폴로니아 기도를 읊조리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sup>20)</sup>

18) Leo Kanner, *Folklore of the Teeth* (Detroit: Singing Tree Press, 1928), 173.

19) Esther Cohen, *The Modulated Scream: Pain in Late Medieval Cultur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0), 95.

## 2. 아폴로니아 성화

성 아폴로니아 숭배의 양상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자료는 그녀를 그린 성화(聖畵)이다. 14세기 이후 유럽에서는 숭배의 유행을 반영하여 성 아폴로니아를 그린 회화가 다수 제작되었다. 그림은 크게 두 유형으로 나뉜다.

첫 번째 유형은 아폴로니아가 순교 장면을 묘사한 그림들이다. 주로 ‘성 아폴로니아의 순교’(The Martyrdom of St Apollonia)라는 제목을 가진 그림으로, 장 푸케(Jean Fouquet)의 작품(1445년), 지오바니 알레마냐(Giovanni d’Alemagna)의 작품(1440~45년), 귀도 레니(Guido Reni)의 작품들(1600~1603년) 등이 유명하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제목의 순교는 고문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즉, 이 그림들은 아폴로니아가 불 속에 뛰어드는 죽음의 장면을 그린 것이 아니라 그전에 묶인 채로 강제로 이빨이 뽑히는 장면을 묘사한다. 문헌 전승에서는 불에 뛰어드는 죽음을 강조하였지만, 그림에서 선택된 결정적 장면은 치아에 고통이 가해지는 순간이다.

예를 들어 영국 캔터베리의 성 토마스 성당에 그려진 프레스코화를 보자(그림 1).<sup>21)</sup> 14세기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되는 이 그림에서 아폴로니아는 석상(石像)을 연상시킬 정도의 부동(不動)자세로 나무에 묶여 있다. 치아가 뽑히는 입에서는 피가 흐른다. 고문관은 등과 허리띠에 연장을 장착한 기술자의 모양으로 신중하게 치아를 뽑고 있다. 뒤에서 논하겠지만, 고문 장면은 당시의 치통 치료 장면을 연상하게 한다. 이 주제를 그린 그림으로 가장 유명한 것은 장 푸케의 1445년 작품이다(그림 2).<sup>22)</sup> 이 그림에도 불은 등장하지 않는다. 그림 중앙에서 길다란 쇠꼬챙이가

20) 기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오 성스러운 아폴로니아여, 당신의 열정으로, 당신이 겪은 치아와 목과 혀의 고통으로 중재하십시오. 치아에서 영원히 통증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윈브랜트, 『치의학의 이 저린 역사』, 80.

21) 그림 1의 출처.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Corenno\\_Plinio\\_-\\_Heilige\\_Apollonia.jpg](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Corenno_Plinio_-_Heilige_Apollonia.jpg)

22) 그림 2의 출처.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Jean\\_Fouquet\\_-\\_The\\_Martyrdom\\_of\\_St\\_Apollonia\\_-\\_WGA08031.jpg](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Jean_Fouquet_-_The_Martyrdom_of_St_Apollonia_-_WGA08031.jpg)

입에 들어가는 모습이 전 화면을 지배하고 있다. 아폴로니아는 십자 모양 판자에 묶여 있는데, 줄을 힘껏 당기는 두 사람, 머리채를 팽팽하게 잡아당기는 사람으로 인해 조금도 움직일 수 없도록 고정되어 있다는 점이 강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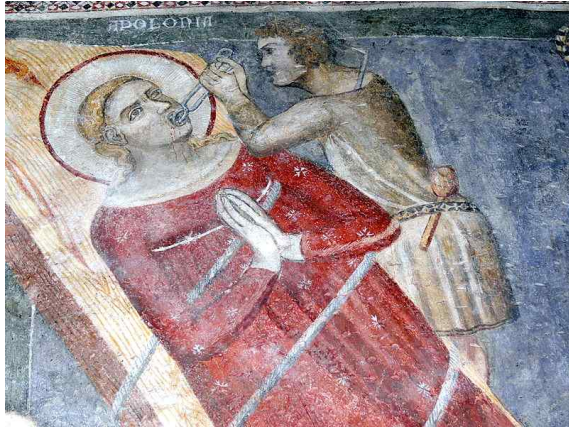


그림 1 캔터베리 성 토마스 성당의 프레스코화



그림 2 장 푸케의 '성 아폴로니아의 순교'의 일부

두 번째 유형은 아폴로니아 단독으로 그려진 그림이다. 주로 ‘성 아폴로니아’(St Apollonia)라는 제목을 가진 그림으로, 엘콜 데 로베르티(Ercole de' Roberti)의 작품(1473년 경), 프란시스코 데 수르바란(Francisco de Zurbaran)의 작품(1636년), 카를로 돌치(Carlo Dolci Painting)의 작품(1670년) 등이 유명하다. 이 유형의 작품은 현재까지도 꾸준히 제작되고 있다. 1984년에 앤디 워홀(Andy Warhol)이 성 아폴로니아를 주제로 실크스크린 연작(Saint Apollonia 331)을 제작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 중에서 수르바란의 작품과 크로아티아 랍 성당에 그려진 프레스코화를 보도록 하자.(그림 3,4)<sup>23)</sup> 아폴로니아는 자신의 치아를 뽑은 집게를 들고 서 있다. 집게에는 뽑힌 이빨이 들려 있다. 첫 번째 유형과는 달리 이 그림들에서 치아가 뽑히는 순간의 고통은 보이지 않는다. 고통의 도구인 집게는 그림의 인물이 아폴로니아임을 식별해주는 기호(記號)의 역할을 한다. 서양 종교화에는 성인마다 정체성을 표상하는 지물(持物, attribute)이 할당되어 있는데, 고통의 가해 수단이 상징물이 되는 일은 빈번하다. 가시 박힌 수레바퀴에 고통 받을 뻔한 성 카타리나(St Catherine of Alexandria)가 수레바퀴를 옆에 끼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진다는지, 화살에 맞아 순교한 성 세바스티아누스(St Sebastian)가 활과 화살을 든 모습으로 그려지는 것이 그러하다. 결과적으로 고통의 피해자가 가해자의 도구를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는 일종의 전도(顛倒)가 발생한 것이다. 치아 고통의 피해자였던 아폴로니아는 가해자의 도구인 집게를 ‘들고 있는’ 존재가 되었고, 여기엔 치통 환자의 수호성인이 치과의사의 수호성인을 겸하게 되는, 우리가 뒤에서 상술할 발전이 함축되어 있다.

23) 그림3의 출처.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Francisco\\_de\\_Zurbar%  
C3%A1n\\_035.jpg](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Francisco_de_Zurbar%C3%A1n_035.jpg)

그림4의 출처. Skrobonja, "St Apollonia's Tooth—a Relic in the Cathedral Treasury in Rab (Croatia)," 500.



그림 4 수르바란의 성 아폴로니아



그림 3 크로아티아 랍 성당의 프레스코화

회화에 묘사된 아폴로니아는 중세 이후 숭배의 내용을 반영한 중요한 변화들을 내포하고 있다. 간단히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공식 문헌에서 아폴로니아는 나이 든 동정녀라고 기록되었지만, 회화에서는 젊은 여성으로 묘사된다. 공식 문헌에서는 군중에게 끌려오다가 이빨이 부러지는 것으로 기록되었지만, 회화에서는 고문의 일환으로 기둥이나 목판에 묶이거나 사람들에게 잡힌 상태에서 이빨이 뽑히는 것으로 묘사된다. 이빨이 부러진다는 것과 뽑히는 것은 간과할 수 없는 차이이다. 작은 부분 같지만 바로 이러한 세부사항과 묘사의 특징이 성인을 특화한 원천이 되기 때문이다.<sup>24)</sup>

24) 요한 하위징아, 『중세의 가을』, 이종인 옮김 (고양: 연암서가, 2012), 327.



### 3. 성 아폴로니아 유골

회화와 더불어 중세 성인승배를 대표하는 현상은 유골(遺骨, relic) 승배이다. 성 아폴로니아의 치아와 유골이 다수 나타났고, 이것들을 모신 교회당이 설립되었다. 중세 이후 성인승배의 확산에 따라 성유골 수요가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 곳곳에 과다할 정도의 유골이 집계되기도 했다.<sup>25)</sup> 아폴로니아 유골도 예외가 아니어서, 어떠한 기록에서는 성유골들을 취합해 보았더니 아폴로니아의 진짜 치아라고 불리는 것들이 엄청나게 모였다고 증언한다.<sup>26)</sup> 현재까지도 전해지는 유골의 수는 상당해서, 한 연구에서는 확인 가능한 아폴로니아 치아 유골을 15개 정도로 추정한다.<sup>27)</sup>

성 아폴로니아 유골은 다른 부위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치아라는 특정한 부위가 모셔진다는 점에서, ‘성스러운 치아’(sacred tooth)의 중요한 사례이다.<sup>28)</sup> 잘 알려진 사례로는 포르투갈 포르토 성당에 봉안된 치아와 크로아티아 랍 지역 성당에 봉안된 치아가 있다. 한 논문에서는 랍 성당의 치아를 임상적으로 분석한 바 있다. (그림5) 연구자들에 따르면 크로아티아 치아 유골은 상악 오른쪽 작은어금니(14번 치아)이며 말단 표면에 약간의 법랑질 손상 존재한다. 그들은 끝부분이 마모되지 않고 잘 돌출되어 있고 치주의 백랑질이 노란색인 것으로 보아 젊은 여성의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였다.<sup>29)</sup> 그러나 공식적 문헌 전승에서 아폴로니아가 나이 든 여

25) 성십자가 조각이 많이 분포되었음은 잘 알려져 있다. 다음 소설의 한 구절은 이를 풍자한 내용이다. “나는 다른 교회나 수도원에서조차 성십자가 조각을 많이 보았다. 모두가 진짜라면 우리 주님은 통나무 두 개를 걸쳐 만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아주 널찍한 숲속에서 돌아가신 모양이다.” 움베르토 에코, 『장미의 이름』, 이윤기 옮김 (서울: 열린책들, 1992), 2: 665.

26) 윈브렌트, 『치의학의 이 저런 역사』, 82.

27) Skrobonja, “St Apollonia’s Tooth—a Relic in the Cathedral Treasury in Rab (Croatia),” 499.

28) 불교의 부처님 치아 유골이 이와 비교될 수 있는 사례이다. 스리랑카 캔디(Kandy)에 있는 불치사(佛齒寺, Sri Dalada Maligawa)와 한국 건봉사(乾鳳寺)가 진신치아사리를 모신 유명한 사찰이다.

29) Skrobonja, “St Apollonia’s Tooth—a Relic in the Cathedral Treasury in Rab (Croatia),”

성이었는데 후대에 젊은 여성으로 변형되었다는 점을 앞에서 밝힌 바 있거니와, 신앙의 기록인 전승 내용을 사실로 전제하고 증명하려는 시도는 의미가 없다는 점을 다시 지적하고 싶다. 성유골은 그것을 숭배하는 공동체가 어떠한 가치를 부여하느냐의 상징으로서의 의미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sup>30)</sup>



그림 5 크로아티아 랍 성당에 봉안된 아폴로니아 치아

#### 4. 신앙의 대중화와 후대의 전승 변화

중세에 발달된 성 아폴로니아 숭배는 서유럽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신앙이 대중화된 양상은 17세기 초의 유명한 소설 『돈키호테』의 한 장면에도 나타난다.

삼손 카라스코 학사: “알고 계신다면, 성 아폴로니아의 기도문이라도 외면서 가세요. 나도 곧 갈 테니까요. 멋진 일을 보게 될 겁니다.”

가정부: “아이고 내 팔자야! 성 아폴로니아의 기도문이나 외라는 말씀이세요? 주인 나리께서 이빨이라도 아프시다면 그걸로 되겠지만 아픈 건 머리인데.”<sup>31)</sup>

---

500.

30) 기어리, 『거룩한 도둑질』, 27-32

31) 미겔 데 세르반테스 사아베드라, 『돈키호테(2)』, 안영욱 옮김 (열린책들, 2014), 123-24.

이 대화에서 이빨이 아플 때면 성 아폴로니아 기도문을 사용한다는 주술적 용법이 대중적으로 당연시되고 있다. 이렇듯 치통의 수호성인으로서 대중화된 이후 후대에 수집된 아폴로니아 전승은 초기의 공식적 문헌과는 사뭇 달라진, 치통 수호성인으로서의 면모가 갖추어진 전승의 모습을 보여준다. 다음은 1895년에 출판된 한 성인전 자료에 수록된 아폴로니아 순교 장면이다.

그다음에 성 아폴로니아가 우상 앞으로 붙들려 들어왔는데, 그녀는 성호를 긋고는 우상 안의 마귀에게 나가라고 명하였다. 그러자 마귀가 크게 울부짖고 나서 상을 깨트리고 비명을 지르며 날아갔다. 폭군이 이를 보고서 그녀를 기둥에 묶고 그녀의 아름다운 치아를 모두 집게로 하나하나 뽑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리고 나서 불을 붙였는데, 그녀가 신앙 안에 존재했기 때문에 불 속으로 뛰어들고 하느님께 영혼을 바쳤다. 그녀는 천사에 의해 하늘나라로 인도되었다.<sup>32)</sup>

고문 장면에서 전과 다른 세부사항들이 추가되었다. 아폴로니아는 건치(健齒)를 떠올리게 하는 ‘아름다운 치아’를 지녔다. 그리고 폭군의 명령을 받은 고문관이 ‘집게’를 들고 기둥에 묶인 그녀의 치아를 ‘하나하나 뽑’는다. 이러한 세부적인 묘사는 회화 전통에서 구체화된 이미지가 전승에 영향을 주었음을 보여준다. 치의학적 세부 묘사가 더해진 자료도 있다. 1939년에 출판된 치의학 전승 모음집에 실린 아폴로니아 발치 장면은 다음과 같다.

249년 알렉산드리아에서 나이 든 동정녀가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혔다. 고문관들은 철침(鐵針, iron point)으로 그녀 치아를 부러뜨리고 겸자(鉗子, tong)로 치근(齒根, roots)을 뽑았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 그녀는 주님께 기도드려서, 치통으로 고통받는 사람 누구나 그녀의 이름으로 탄원하면 즉각 고통이 덜해지게 해달라고 하였다. 하늘에서 음성이 내려와 기도에 응답하였다. “그리스도의 신부여, 당신은 기도하는 바를 하느님으로부터 얻었노라.” 그 후 고문관들이 그녀에게 신앙을 포기하면 생명을 부지할 수 있다고 제안하자, 그녀는 거부하고 순교를 택했다.<sup>33)</sup>

32) Jameson, *Sacred and Legendary Art* (Boston: Houghton, Mifflin and company, 1895), 271

이 묘사에서 발치는 치아를 파괴하는 절차와 치근을 제거하는 절차로 세분되었고, 절차마다 ‘철침’과 ‘검자’라는 구별된 도구가 할당되었다. 여기서 고문관의 행위는 전문화된 치과의사의 기술을 연상시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녀가 치통의 수호성인이 된 근거도 보장되어 있다. 고통의 와중에 치통 환자를 위한 기도를 드려 응답을 받았다는, 그래서 고통을 경감시킬 위력을 얻게 되었다는 설명은 초기의 공식적 문헌에서 비어 있던 부분이지만 오랜 전승의 결과 인과의 고리로서 채워지게 되었다.

성인 숭배에는 교회의 공식적 입장과 대중적 신앙의 두 층위가 공존한다. 교회의 공식 입장을 보여주는 자료로는 『로마 순교록』(Martyrologium Romanum)이라는 문헌이 있다. 『로마 순교록』은 교회력에서 인정되는 성인 기념일을 수록한 책자로, 1583년에 교황청에서 여러 순교록을 종합하여 출간한 이래 여러 차례 개정되었으며, 가장 최근에는 2001년에 발간되었다. 이 목록에서 성 아폴로니아는 2월 9일의 성인으로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아폴로니아에 관한 간단한 설명이 제공된다. 그녀는 박해자에 의해 이빨이 부러진 이후에 기둥에 묶여 불살라진다는 위협을 받는다. 그녀는 위협에 굴하지 않고 성령에 힘입어 자발적으로 불 속으로 뛰어들었고, 박해자들은 그 장면에 두려워 떨었다고 기록되어 있다.<sup>34)</sup> 오늘날도 교회의 공식적 입장 차원은 성 아폴로니아는 자발적 순교를 강조하는 에우세비우스 문헌의 기초를 따르고 있다. 반면에 치통 환자의 수호성인으로서의 모습은 대중적 차원에서 유지되고 있다.

33) Maurice David Kaufman Bremner, *The Story of Dentistry from the Dawn of Civilization to the Present: With Special Emphasis on the American Scene* (Brooklyn, N.Y.: Dental Items of Interest Publishing Co., 1939), 23-24.

34) *The Roman Martyrology*, 3<sup>rd</sup> ed. Reverend Raphael Collins (tr.) (Fitzwilliam, New Hampshire: Loreto Publication, 2001), 32.

#### IV. 성인 숭배의 치의학적 맥락과 치과의사의 수호성인

##### 1. 치아 고통의 경험과 치통 수호성인의 형성

중세 유럽인의 치아 고통은 어떻게 해서 성 아폴로니아 숭배라는 종교적 표현으로 나타나게 되었을까? 고통에 관한 중요한 이론가 일레인 스캐리에 따르면, 인간은 쉽게 언어화되지 않는 고통을 상상하기를 통해 단편적인 인공물로 치환한다고 한다. 이 ‘인공물’을 대표하는 것이 무기와 도구인데, 무기와 도구는 그것이 감각능력(sentience)을 지닌 표면에 작용하느냐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예를 들어 소나 말을 찌르는 칼은 무기이지만 식사에서 살아 있지 않은 고기를 자르는 칼은 도구이다. 감각능력이라는 기준은 우리 인식에 따라 유동적이어서, 의료기구나 치과 도구는 인간 몸에 진입하는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도구로 무기가 아니라고 인식된다.<sup>35)</sup> 이러한 이론적 맥락에서 우리가 앞에서 본 성 아폴로니아의 ‘집게’의 의미를 다시 생각할 수 있다. 집게는 분명히 중세인의 치아 고통이 상상하기를 통해 변환된 인공물이다. 그런데 그것이 도구일까, 무기일까? 현대인이라면 치과에서 사용되는 집게를 도구라고 인식할 것이다. 그러나 현대인의 구강은 마취를 통해 감각능력이 없는 표면으로 전환된 것이지만, 중세인들에게는 그렇지 않았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세의 치의학적 맥락을 살필 필요가 있다.

근대 치의학 성립 이전의 치아 치료의 풍경은 지금과는 사뭇 달랐다. 치료를 담당하는 이는 전문직종으로 인정받는 치과의사(dentist)가 아니라 발치사(拔齒師, drawer)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다. 발치사는 사기꾼 약장수(charlatan), 돌팔이(quack, empiric)라고 불리기도 했던 하층계급의 사람들로,<sup>36)</sup> 마을을 순회하면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치통 환자의 치아를 뽑는 시술을 공연처럼 보여주면서 생계를 유지하였다. 근대 이전에 치통을 치료하는 방법은 사혈(瀉血)이나 발치(拔齒) 말

35) 일레인 스캐리, 『고통받는 몸』, 271-286.

36) 윈브렌트, 『치의학의 이 저런 역사』, 59-61.

고는 없었다. 아무 마취 수단 없이 행해진 발치는 극단적인 고통과 출혈을 동반하였다. 아픈 이를 뽑고 나서 고통이 진정된 일도 있지만, 피가 멈추지 않고 악화하여 사망하는 일도 적지 않았다.

중세의 치아 치료는 고문과 거의 다를 바가 없었다. 목이거나 사람들에게 붙잡힌 채로 억지로 이빨을 뽑아내는 모습은 중세 치통 환자들의 흔한 치료 장면이었다. 공식적 문헌 자료에는 존재하지 않거나 강조되지 않았지만 중세인들의 상상에서는 핵심을 차지한 고문 장면, 그 장면에서 팽팽하게 포박되어 치아가 뽑히기를 기다리는 아폴로니아의 모습은 치통 환자의 모습이었고, 치아를 뽑는 고문관의 모습은 발치사의 모습이였다.<sup>37)</sup>

이 논문에서 집게라고 표현한 도구의 치의학적 명칭은 겸자(pincet) 혹은 포셉(forceps)이다. 겸자는 고대 이집트 벽화에서부터 등장하는, 유서 깊은 치의학 도구인 동시에 근대 치의학 이전까지 거의 유일한 치과 도구이기도 했다.<sup>38)</sup> 현대인에게 겸자는 도구로 받아들여지겠지만, 중세인들에게는 고문의 연장, 즉 무기로서의 의미가 강했다. 성 아폴로니아 도상과 숭배에는 치통을 극복하기 위해 그 못지않게 고통스러운, 고문과도 같은 발치를 겪어야 했던 중세인들의 경험이 반영되어 있다.

아폴로니아 숭배가 발달한 중세 말기는 요한 하위징아(Johan Huizinga)가 ‘중세의 가을’이라고 불렀던 시기이다. 종교적 사유에 물질적 형식을 부여하려는 열망이 가득하여 도상, 회화, 유골을 통한 성인숭배가 발달한 시기였다.<sup>39)</sup> 또 흑사병이 유럽을 휩쓸고 지나간 후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이러한 구체적 형태의 신앙과 결합한 시기였다. 대표적인 예가 14, 15세기에 유행한 “열네 명의 성인 조력자”(Fourteen Holy Helper)에 대한 신앙이다. 이들은 전공의(專攻醫) 집단처럼 각

37) 마취제 발명 이전까지는 고통을 덜 받고 무사히 발치하는 것이 사람들의 절실한 희망이었다.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치를 위한 기계 장치를 상상하기도 하였다. Javier Moscoso, *Pain: A Cultural History* (Houndmills: Palgrave Macmillan, 2012), 115-116.

38) Malvin E. Ring, *Dentistry: An Illustrated History* (New York: Abradale Press, 1985), 51.

39) 하위징아, 『중세의 가을』, 317-334.

기 두통, 열병, 인후질환, 페스트, 내장 질환, 역병 등을 전담하여 관한 기도를 들어 주었다.<sup>40)</sup> 아폴로니아가 어느 시점부터 치통을 담당하는 성인으로 부상하였는지를 보여주는 정확한 자료는 찾기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서양의 대중 전통에서 질병의 고통에 상응하여 성인 숭배를 형성했던 14, 15세기 경에, 아폴로니아 역시 치아 질병을 전담하는 성인으로 숭배받기 시작했을 것이라는 추정을 제안한다.

## 2. 치과의사의 수호성인으로

치과의사는 근대 들어서 형성된 전문 직종이다. 아폴로니아는 이 새로운 집단에 정체성을 부여하는 수호성인의 역할을 하게 된다. 어떤 과정을 거쳐 환자의 성인이 의사의 성인으로, 곁자의 시술 대상의 성인이 곁자 시술자의 성인이 되었는지를 밝혀주는 구체적인 자료는 없다. 다만 당시의 역사적 맥락을 통해 변화를 이해할 수는 있을 것이다.

중세 말기부터 치과 시술을 전담하는 직업군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의사 중에서 대학을 나온 이들은 대학의 상징인 ‘긴 예복의 의사’들을 구성하였고, 이보다 낮은 계급으로 ‘짧은 예복의 외과’들이 존재했다. 가장 낮은 계층으로 사혈, 붕대 감기, 발치, 연고 바르기 등의 소소한 일을 하는 이발외과의(barber-surgeon)들이 있었다. 이발외과의 중에서 발치를 주로 담당하는 특별한 치과 기술을 가진 이들이 분화되어 치아기술자(dentator)라고 불릴만한 숙련된 집단이 나타났다. 이들은 현장에서 배우는 도제식 수련을 통해 기술을 전수하였고, 중세 말기에 길드를 조직하였다.<sup>41)</sup> 이때 성 아폴로니아는 치아기술자 길드의 수호성인으로 채택된 것으로 보인다. 18세기 이후 근대적인 치과의사가 생긴 이후에도 성 아폴로니아는 치과의사의 수호성인의 자리를 유지하게 되고, 현재도 그녀를 치과의사 모임의 상징으로

40) Gabor Klaniczay, “Using Saints: Intercession, Healing, Sanctity,” In John Arnold (ed.), *Handbook of Medieval Christianit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228; R. Guiley, *The Encyclopedia of Saints* (New York: Facts on file, Inc., 2001).

41) 필리어스 로이 그랜트, 『전문직 치과의사로의 긴 여정: 치의학 역사』, 치과의사학 교수협의회 옮김 (서울: 대한나래출판사, 2018), 22-35.

사용하는 관행은 이어지고 있다.

성 아폴로니아가 치과의사의 수호성인이 된 것은 회화에서 그녀가 겹자를 들고 있다는 도상적 특성 때문이다. 단지 도상적 특성 때문에 원래의 고통의 맥락과는 분리된 성인의 기능이 부여되는 일은 성인승배에서 빈번히 일어난다. 가시 박힌 수레바퀴에 순교 당할 뻔한 성 카타리나는 성화에서 수레바퀴를 옆에 둔 모습으로 그려지기 때문에, 그 도상적 유사성으로 인해 실 잣는 장인 길드의 수호성인이 되었다. 순교를 당할 때 가슴을 절단당했던 성 아가다(St. Agatha)는 훗날 성화에서 절단된 가슴을 쟁반에 들고 다니는 모습으로 그려지기 때문에, 그 도상적 유사성으로 인해 종 만드는 장인 길드의 수호성인이 되었다. 원래의 고통의 맥락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기표-기의를 결합이 일어나서, 수레바퀴와 가슴의 도상적 형태만 남아 기표(記表)가 되고 여기에 새로운 기의(記意)가 결합되었다. 마찬가지로 성 아폴로니아를 표상하는 지물, 즉 이빨이 집혀있는 겹자는 원래의 순교 맥락에서 벗어나 그의 역할을 표현하는 기표가 되었다. 도상적 유사성으로 인해 아폴로니아는 겹자를 들고 일하는 치아기술자, 그리고 치과의사의 수호성인으로 받아들여졌다.

### 3. 치과의사의 상징

치의학이 근대학문으로 정립되는 과정에서 성 아폴로니아는 치의학 역사의 일부로 편입된다. 최초의 치의학 문헌 중 하나가 1557년에 마르티네즈가 스페인어로 저술한 치의학 책이다. 치아를 소독하고 발치하는 데 사용되는 수십 종에 달하는 겹자와 끝의 사용법을 설명한 이 책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성 아폴로니아의 목판화가 실려 있다.<sup>42)</sup> 그 이후 대부분의 치의학사에는 성 아폴로니아에 대한 서술이 포함되었다. 서술하는 태도가 다양하고, 때로는 미신적인 것으로 다루어지기도 하지만, 성 아폴로니아는 치의학사에서 공히 다루어야 할 항목으로 자리매김하고

42) Julio Endelman, "A Dental Book of the Sixteenth Century," *Dental Cosmos* 45 (1903): 39-41.



있다.

성 아폴로니아는 현재도 서양에서 치과의사 집단을 대표하는 상징으로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다. 해마다 성 아폴로니아 축일인 2월 9일이면 프랑스와 인접 국가 치과의사들이 근처의 아폴로니아 예배당을 향해 순례하는 전통이 이어지고 있다.<sup>43)</sup> 치과의사 회합의 이름으로도 자연스럽게 사용된다. 1920년 보스턴에서 조직된 치과의사회의 이름은 ‘성 아폴로니아 조합’이고 같은 도시의 종교적 치과 자선 조직의 이름은 ‘성 아폴로니아 연합’이다. 치과의사들의 모임을 기념하는 우표 도안에도 성 아폴로니아 도상이 사용된다. 1979년 산마리노에서 열린 제13차 구강보건학회 기념 우표, 1982년 오스트리아에서 열린 제70차 국제치과협의회 기념 우표에 그녀 그림이 사용되었다. 성 아폴로니아는 서양 치과협회의 엠블럼으로 흔히 사용된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간접적인 영향이 남아 있다. 그녀의 형상은 대한구강해부학회 마크에 사용되고 있고, 과거 대한치과의사협회 마크에 사용된 천사 모양의 여인도 아폴로니아인 것으로 추정된다.<sup>44)</sup> 성 아폴로니아는 새로 형성된 전문직인 치과의사에 종교적 가치를 부여하는 상징적 자원을 제공해오고 있다.<sup>45)</sup>

## V. 맺음말

성 아폴로니아 숭배는 치의학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생소할 수도 있는, 특수한 영역의 종교현상이다. 그러나 그것은 서유럽을 중심으로 1800년 넘게 지속되고 현재까지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방대한 종교현상이기도 하다. 성 아폴로니아에 관한 주요 공식 문헌은 고대, 중세, 근대에 걸쳐 있어 맥락 안에서 자료를 이해하는 것이 간단치 않다. 더구나 치통 환자의 수호성인으로서의 성 아폴로니아 숭배는 중세 말기 대중적 전통에서 발달하였기 때문에, 다양한 지역에

43) 윈브랜트, 『치의학의 이 저린 역사』, 82.

44) 박병건, 「대한구강해부학회를 포함한 몇몇 치의학단체 표상(表象)들에 관한 소고(小考)」, 『대한구강해부학회지』 33/1 (2012): 31-38.

45) Balan, “Saint Apollonia,” 12.

흩어져 있는 교회, 성화, 성상, 유골 등의 물질적 자료들의 해석을 바탕으로 신앙의 논리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사실상 한 편의 논문에서 다루기에는 넓은 범위의 작업이고, 실제로 이 논문의 여러 대목에서 자료와 해석 부족으로 인한 한계가 드러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문에서 성 아폴로니아를 전반적으로 다룬 것은 자료의 다양성을 정리하는 전체 그림의 제시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치의학계의 선행 연구들에서는 성 아폴로니아라는 항목 아래 다양한 자료가 단일한 내용을 전달하는 것처럼 뭉뚱그려져 있었다. 도상 자료는 문헌을 설명하는 보조 자료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공식적 차원의 문헌과 대중적 차원의 숭배에 해당하는 자료를 분리하여 제시하였다. 그 결과 성 아폴로니아 숭배라는 현상에 두 층위가 존재한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나게 되었다. 선구적인 성인 숭배 연구가 피터 브라운(Peter Brown)은 성인 숭배에서 엘리트의 성취를 살피는데 그치지 말고 엘리트 못지않게 의미 있는 형태로 성인에 대한 애정을 표현했던 다른 집단을 집중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sup>46)</sup> 브라운의 지적은 우리 연구에 부합한다. 아폴로니아 관련 초기 문헌을 생산한 엘리트 외에도, 아폴로니아에 대한 애정을 표현한 다른 집단인 중세 서유럽 대중은 자신의 종교적 정서를 담은 물질적 대상들을 생산하였다. 근대 초기의 치의학 전문가 집단도 아폴로니아에 애정을 표현한 또 다른 집단이었다. 그들은 집단 정체성을 표현할 상징으로 아폴로니아를 수용하였다. 본 논문은 공식적 자료에만 주목하는 신학적 접근에서는 제대로 조명되지 않을 층위를 분별하고 이 층위가 치통 환자와 치과 의사의 수호성인으로서의 아폴로니아를 이해하는 데 핵심적이라는 사실을 제시하였다.

성 아폴로니아는 종교가 아픔에 대한 문화적 반응임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초기 문헌에 기록된 아폴로니아는 기독교 박해에 희생된 여성이고 서술의 강조점은 자발적 순교에 주어졌다. 그러나 치아의 고통을 겪는 중세 대중은 문헌에서 순교 과정에서 치아가 부러진다는 세부 묘사를 소환하여 다른 강조점을 끌어냈다. 신자의 육체적 고통 경험에 반응하여 아폴로니아는 치통의 고통을 가장 잘 이해해줄

46) 피터 브라운, 『성인 숭배』, 정기문 옮김 (새물결출판사, 2002), 35-36.

수 있는 존재로 부각되었다. 기도서, 성화, 유골 등의 자료는 그가 치통의 수호성인이 된 내적 논리와 대중적 기대를 보여준다. 특히 성 아폴로니아의 핵심 상징인 ‘집게’는 치아의 고통을 몸 밖으로 꺼내어 대상화하고자 하는 대중의 열망을 반영한다. 집게는 발치 외에는 치료 방법이 없는 척박한 치과 의료 환경을 보여주는 상징으로, 치통의 고통 못지않게 발치의 고통이 공포스러웠던 역설적인 경험이 종교적으로 표현된 것이기도 하다. 무엇보다도 아폴로니아가 획득한 성스러운 힘의 원천은 그가 고통의 경험을 갖는다는 사실, 그래서 고통에 공감해줄 수 있을 것이라는 대중적 기대였다.

성 아폴로니아 숭배는 오늘날까지 실천되는 생명력 있는 종교현상이다. 그의 기도서와 메달이 종교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고, 여전히 치과 치료에 고통받고 있는 서양 환자들은 치과에서 성 아폴로니아에 기도를 드리고 있다. 한편 성 아폴로니아는 근대 들어 전문직종으로 확립된 치과의사의 정체성을 제공해주는 상징의 역할을 하고 있다. 치과의사 존재 이전부터 치통을 치료하던 모범적 모델로서, 성 아폴로니아는 치과의사의 기원 신화로서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의 손에 든 집게가 고통과 치료 모두를 상징하는 것처럼, 성 아폴로니아는 환자와 의사 모두의 표상으로 받아들여지며 다층적 상징으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주제어: 성 아폴로니아, 성인 숭배, 치아, 치통, 고통, 대중전통, 공감, 치유

원고접수일: 2020년 5월 12일

심사완료일: 2020년 6월 19일

게재확정일: 2020년 6월 29일

## 참고문헌

- 그랜트, 필리어스 로이. 『전문직 치과의사로의 긴 여정: 치의학 역사』. 치과의사학 교수협의회 옮김. 서울: 대한나래출판사, 2018. (Grant, Philius Roy. *The Long Climb: From Barber-surgeons to Doctors of Dental Surgery*. Batavia, IL: Quintessence Publishing, 2013.)
- 기어리, 패트릭. 『거룩한 도둑질: 중세 성유골 도둑 이야기』. 유희수 옮김. 서울: 길, 2010 (Geary, Patrick J. *Furta Sacra: Thefts of Relics in the Central Middle Ages, 800-1100*.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5.)
- 김준한·김지은. 「『황금전설』 프랑스어 번역사 연구 시론」. 『통번역학연구』 19 (2015): 179-208.
- 박병건. 「대한구강해부학회를 포함한 몇몇 치의학단체 표상(表象)들에 관한 소고(小考)」. 『대한구강해부학회지』 33(1) (2012): 31-38.
- 브라운, 피터. 『성인 숭배』. 정기문 옮김. 서울: 새물결출판사, 2002. (Brown, Peter. *The Cult of Saints: Its Rise and Function in Latin Christianit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1.)
- 세르반테스, 미겔 데. 『돈키호테(2)』. 안영옥 옮김. 서울: 열린책들, 2014 (Cervantes, Miguel de. *Segunda parte del ingenioso caballero don Quixote de la Mancha*. 1615.)
- 스캐리, 일레인. 『고통받는 몸: 세계를 창조하기와 파괴하기』. 메이 옮김. 과주: 오월 의봄, 2018. (Scarry, Elaine. *The Body in Pain: The Making and Unmaking of the Worl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5.)
- 아우구스티누스. 『신국론(제1-10권)』. 성염 역주. 왜관: 분도출판사, 2004.
- 에코, 움베르토. 『장미의 이름』. 이운기 옮김. 서울: 열린책들, 1993. (Eco, Umberto. *Il nome della rosa*. Milan: Bompiani, 1980.)
- 윈브랜트, 제임스. 『치의학의 이 저린 역사』. 김준혁 옮김. 서울: 지식음만드는지식, 2015. (Wynbrandt, James. *The Excruciating History of Dentistry*. New York: St. Martin's Griffin, 2000.)
- 프랭크, 아서. 『몸의 증언: 상처 입은 스토리텔러를 통해 생각하는 질병의 윤리학』. 최은경 옮김. 서울: 갈무리, 2013. (Frank, Arthur W. *The Wounded Storyteller: Body, Illness, and Ethics*.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5.)

- 프리티어드, 제임스 B. 엠티. 『고대 근동 문학 선집』. 김구원 외 옮김. 서울: CLC, 2016. (Pritchard, James B. ed. *The Ancient Near East: An Anthology of Text and Picture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1.)
- 하위징아, 요한. 『중세의 가을』. 이종인 옮김. 고양: 연암서가, 2012. (Huizinga, Johan. *The Autumn of the Middle Ages*. Rodney J. Payton & Ulrich Mammitzsc (tr.)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6[1919].)
- Balan, Gheorghe Gh, et al. “Saint Apollonia: Between Paganism and Christianity in Medicine.” *International Journal of Medical Dentistry* 5(1) (2015): 7-15.
- Bremner, Maurice David Kaufman. *The Story of Dentistry from the Dawn of Civilization to the Present: With Special Emphasis on the American Scene*. Brooklyn, New York: Dental Items of Interest Publishing Co, 1939.
- Butler, Alban. *Lives of the Saints*. New York: Kenedy, 1956.
- Callahan, Leslie Abend. “The Torture of Saint Apollonia: Deconstructing Fouquet’s Martyrdom Stage.” *Studies in Iconography* 16 (1994): 119-38.
- Cohen, Esther. *The Modulated Scream: Pain in Late Medieval Cultur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0.
- Donnelly, Ryan. “St. Apollonia: The Patron Saint of Dentistry.” *Journal of History of Dentistry* 53(3) (2005): 97-100.
- Endelman, Julio. “A Dental Books of the Sixteenth Century.” *Dental Cosmos* 45 (1903): 39-43.
- Eramo, Stefano et al. “A “Sacra Rappresentazione” of Saint Apollonia’s Martyrdom.” *Journal of the History of Dentistry* 65(2) (2017): 63-72.
- Eusebius. *The Ecclesiastical History*. Kirsopp Lo (tr.).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64.
- Foley, G.P.H. *Foley’s Footnotes: A Treasury of Dentistry*. Washington Square East, 1972.
- Frijhoff, W. Th. M. “Official and Popular Religion in Christianity: The Late Middle-Ages and Early Modern Times(13th - 18th Centuries).” Pieter Hendrik Vrijhof and Jacques Waardenburg, eds. *Official and Popular Religion: Analysis of a Theme for Religious Studies*. The Hague: Mouton Publishers, 1979.

- Gheorghe Gh Balan, et. al. "Saint Apollonia: Between Paganism and Christianity in Medicine." *International Journal of Medical Dentistry* 5(1) (2015): 7-15.
- Glucklich, Ariel. *Sacred Pain: Hurting the Body for the Sake of the Soul*.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 Guiley, R. *The Encyclopedia of Saints*. New York: Facts on file, Inc, 2001.
- Jacobus, de Voragine. *The Golden Legend: Readings on the Saints*. William Granger Ryan, tr.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3[1260].
- Jameson, Anna Brownell. *Sacred and Legendary Art*. Boston: Houghton, Mifflin and company, 1895.
- Kanner, Leo. *Folklore of the Teeth*. Detroit: Singing Tree Press, 1928.
- Kelley, Henry A. "Saint Apollonia: The Patron Saint of Dentistry." *The Journal of the National Dental Association* 6(5) (1919): 400-12.
- Klaniczay, Gabor. "Using Saints: Intercession, Healing, Sanctity." John Arnold, ed. *Handbook of Medieval Christianit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 Moscato, Javier. *Pain: A Cultural History*. Houndmills: Palgrave Macmillan, 2012.
- Moss, Candida. *The Myth of Persecution: How Early Christians Invented a Story of Martyrdom*. New York: Harper One, 2013.
- Ring, Malvin E. *Dentistry: An Illustrated History*. New York: Abradale Press, 1985.
- The Roman Martyrology*, 3rd ed. Reverend Raphael Collins (tr.) Fitzwilliam, New Hampshire: Loreto Publication, 2001.
- Skrobonja, A, et al. "St Apollonia's Tooth—a Relic in the Cathedral Treasury in Rab (Croatia)." *British Dental Journal* 207(10) (2009): 499-502.
- Smithers, A.B. *From Empirics to a Science: A Compendium of Dental Folklore and Early Dental History*. Pen Press Publishers, Limited, 2011
- Taylor, J.A. *History of Dentistry: A Practical Treatise for the Use of Dental Students and Practitioners*. New York: Macmillan Company, 1922.

Abstract

## The Religious Expression of Toothache - The Cult of St. Apollonia -

Bhang, Won-il (Soongsil Univ.)

The cult of St. Apollonian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religious expressions related to toothache. Apollonia was a female Christian who was reported to have been martyred in 249, and was canonized in the early church. She was stood out as the saint for patients with toothache at the late Middle Ages, and to this day, various forms of faith for her, such as relics and religious paintings, have been practiced.

Official documents about St. Apollonia, such as *The Church History* by Eusebius and *The Golden Legend* by Jacobus, highlight her voluntary martyrdom. However the medieval popular tradition paid attention to the details in which she was damaged by teeth before the martyrdom. She was expected to appeal to Jesus by empathy for the suffering of toothache. Apollonia depicted in pictures represents the painful experience of the medieval Europeans who lived in a poor dental medical environment with no treatment other than extraction.

She is represented by forceps which externalizes the pain of a patient with toothache. Due to the iconic similarity of holding

tongs, Apollonia became a patron saint of dentists who were formed as medical professionals in modern times. She is accepted as a symbol for both patients and doctors and has remained with multi-layered symbols.

Key Words: St. Apollonia, cult of saints, tooth, toothache, suffering, popular tradition, sympathy, healing